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생애목표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연구

: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임 경 용

생애목표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연구

: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Study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difference,
Career Decision Level by life goal types
- focus on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2016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임 경 용

생애목표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연구

: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택 호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07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 담 심 리 학 과

임 경 용

임경용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권해수 (인)</u>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정승아 (인)</u>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u>김택호 (인)</u>

2015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및 가설	6

II. 이론적 배경

A. 특성화 고등학교	7
1. 특성화 고등학교의 정의	7
2.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성	7
B.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0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정의	10
2. 특성화 고등학생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1
C. 진로결정수준	12
1. 진로결정수준의 정의	12
2. 특성화 고등학생과 진로결정수준	13
D. 생애목표유형	14
1. 생애목표의 정의	14
2. 생애목표유형의 종류	15
가. 성취지향목표	15
나. 삶지향목표	16
3. 생애목표유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17
4. 생애목표유형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18

III.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19
B. 측정 도구	19
C. 연구 절차	21
D. 자료 분석 방법	21

IV. 연구 결과

A. 인구통계학적 특성분석	22
B.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23
C.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	23
D. 생애목표유형분류	24
E. 생애목표유형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6
F. 생애목표유형별 진로결정수준	26

V. 논의 및 결론

A. 연구결과 및 논의	28
B. 의의 및 제한점	31

참고문헌	33
------------	----

부 록	43
-----------	----

표 목 차

<표 1>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률&취업률 추이(2000~2013)	8
<표 2> 청년 고졸 취업자의 상위 10개 직업	9
<표 3> 인구 통계학적 특성분석	22
<표 4>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23
<표 5>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24
<표 6> 군집유형분포	25
<표 7> 최종 군집 유형	25
<표 8> 생애목표유형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점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26	
<표 9> 생애목표유형별 진로결정수준 점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	27

ABSTRACT

Study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difference,
Career Decision Level by life goal types
– focus on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Lim Kyung Yong

Advisor : Prof. Kim Teak-Ho, Ph.D.

Department of Medicin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effect of life goal types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for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nts include 282 students from multiple specialized high schools in G Metropolitan City, U Metropolitan City, Y-shi, H-shi, N-shi, and Y-shi. Sex and school year are not considered critical variables. Given notice of an object of this study and a guideline, participants answered a survey, which was processed through SPSS 21.0. Life goals were defined by applying K-means clustering analysi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were analyzed by ANOVA and Scheffe post hoc test.

Results are following: first, students in the high level goal group whose achievement oriented goal and life oriented goal from life goals are impartially developed show better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than in the other group. Second, the high level goal group has a higher level of

major/career decision than the other group doe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career decision level in general.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of the fact that it is the first research conducted to the subject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with the concept of life goal applied. It also confirms that life goal types influence on career factors like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t is better to suggest that future studies be carried out to investigate influence of life goal types in relation to behavioral factors.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 고민 속에서 전문 상담자나 교사 등과 같은 전문가가 개인의 진로계획, 의사결정, 적응문제 등에 조력하게 된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7). 청소년기 중에서도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도 고등학교 시기는 이전시기에 비해 진로결정이 가속화되며 역동적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강정은, 2008). 따라서 고등학교 시기에 진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과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졸업 후 상급학교인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는 공교육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학교의 다양화와 특성분야에 걸 맞는 학교형태의 설립 필요성에 의해 등장하였다(이병욱 외, 2010).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개인의 강점과 특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에 따른 취업을 주요한 진로목표로 삼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도 일반계 고등학교와 매우 다르며, 진로를 결정하는 시점 또한 일반고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야만 한다(김동심, 2014; 안태희, 2015).

하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한 무관심, 정보수집능력의 미흡,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 부재, 자신감 결여, 자기관리 능력의 저조함 등의 이유로 인해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조수정, 2013).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입학동기를 살펴보면, ‘전공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흥미와 적성에 맞게’ 와 같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기초로 한 자발적 동기가 아닌 단순히 ‘인문계를 진학하기에는 성적이 부족해서’ 같은 이유가 대부분이며, 성적이 낮아 일반고를 진학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이류교육기관으로 전락하였다는 평가 또한 적지 않다(김소예, 2009; 이상준, 2008; 이

정규, 2011).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할 때도 순간적인 기분이나 친구의 영향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관심이 적어지고 진로에 대한 뚜렷한 의식 또한 없어져 결국 삶에 대한 목표마저 흐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졸업 후 불만족스러운 진로결정으로 이어진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분별한 진로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의 진로에 대해 준비할 수 있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그 동안 다양한 계층의 진로장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변인이지만,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가정환경이나 낮은 학교 성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학생들이 3년 동안 자신의 진로탐색과정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신념이다(조수정, 2013). 특성화 고등학교 교과 과정 특성 상 1,2학년 동안 직업 체험이나 특정 직업에서 요구되는 자격증 취득 등의 준비활동을 통해 3학년 즈음 취업을 시작하는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뒷받침 되어있지 않다면 진로탐색을 하는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모호한 자세로 보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상당수는 자신이 종사할 직업을 별다른 준비 없이 졸업 직전에 결정하고 있으며, 계열이나 전공에 무관한 취업을 하거나 고학력을 요구하는 사회 풍조에 따라서 진학을 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이선제, 2011)는 그만큼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로 보여 진다.

더 나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전공 선택뿐만 아니라 훗날 장래 진로에 대한 확고함 또한 증진시켜 진로결정에 도움을 준다. 그간의 연구결과(양진희, 김봉환, 2008; 이성애, 2005)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결정을 의미하는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와 전공에 대한 효능감 만큼 결정수준 또한 뒤따르고 있는지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한 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이 함께 상승한다면 진로결정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더 확연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전병화, 2008).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대학진학과 관련된 진로결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편이다. 변인 또한 사회적 지지(이종열, 2006; 전순초, 2010; 서영

자, 2012; 안태희, 2015), 집단 프로그램(김태경, 2007; 남순임, 2012; 박소형, 2012; 임정인, 2014), 부모와의 관계, 애착, 양육태도(김은주, 2009; 이수미, 2012; 장보라, 2014)같은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들은 학생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제공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그간 진로에 대해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선행연구의 흐름에서 벗어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발적인 동기에 따른 개인 내부적인 요인이 필요한 시점이다(조규형, 2014). 더구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시기에 형성되는 삶의 가치에 따라 졸업 후 취업처 결정 대해 고민하며, 결정 후에는 진로방향이 크게 달라질뿐더러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과 동기를 가지고 목표설정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김효정, 김봉환, 2011). 최근 다양한 계층에서 연구되고 있는 생애목표는 기존 내재적/외재적 목표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생애 동안에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시간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생애목표는 개인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를 제공하고 방향을 안내하게 된다(Schmuck & Sheldon, 2001). 특히 진로결정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생애목표는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Harris et al., 2003; Headey, 2008; Cantor et al., 1991), 학업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Nurmi, Salmela-Aro & Koivisto, 2002). 또한 생애목표는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로, 청소년기 이후에도 사람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생들의 생애목표는 성인기의 직업 만족도, 교육수준, 경제적 성공, 인간관계의 질, 사회적 공헌의 정도, 건강 등과 관련성을 갖게 되는데,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고등학교 과정에 발견하고 그에 맞는 장기적인 진로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생애목표 설정은 필요한 것이며, 한 학생이 어떠한 성질의 생애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지에 따라 자신의 진로에 있어 대처하는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생애목표는 어느 누구나 자신의 과업에 몰입하게 하고, 무언가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켜 삶을 능동적으로 살게 한다. 하지만 부의 획득이나 사회적 인정과 경쟁적인 목표가 과도하게 중요시되고, 사회적으로도 자신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장려하는 현대사회의 분위기 속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진로결정에 있어 수동적으로 살게 된다.(김봉환, 2011; 정은경, 2012). 실제로 많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진로방향이나 취업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정규직일수록, 4대 보험이나 다양한 복지혜택이 좋을수록 양호한 일자
 리라고 지각한다는 연구(최동선, 이종범, 2013)는 과도한 성취지향적인 현대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애초 특성화 고등학
 교 입학 당시 대학진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개인의 학
 력은 수입과 안정성, 장래성을 보장하는 원천이 된다고 생각한다(이종성, 2004; 이은
 아, 2007). 물론 직장, 일, 학업 등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은 개인의 진로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삶에서의 행복을 위한 충분조
 건이 아니다(Russell, 1930; Seligman, 2004).

과도한 성취지향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과 소질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 단지 취업을 위해 고등학교를 선택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현저히 낮으며(이명갑, 2002), 정서적으로도
 삶에서 일이나 과업달성 같은 성취에 과도한 지향성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
 고, 삶의 질을 후퇴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Korman & Korman, 1980; Kofodimos, 1993). 더불어 경제적 성
 공이나 사회적 인정, 성공과 같이 성취지향목표와 그 의미를 같이하는 외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 또한 낮은 수준의 안녕감과 높은 스트레스와 관련됨이 보고되었으며
 (Kasser & Ryan, 1996),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우 수 많은 심리적 장애에도 취약하
 다는 연구결과 또한 제시되고 있다(신중호, 2013).

반대로 삶지향목표만을 지향하는 것도 개인의 발전과 성장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적 유대관계, 가정의 화목 등과 같은 자신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 못지않
 게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것은 현대 사회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개인적인 만족
 과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성취’와 ‘개인적 삶’ 간
 의 균형 추구는 발달단계 상 다소 난해한 개념일 수 있으나 성취지향목표와 삶지향목
 표가 균형있게 발달한 집단에서는 삶의 의미, 주관적 안녕감, 성취동기, 자기개념이 높
 다는 연구결과(김봉환, 2011)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진로결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성화 고등학생들은 그리 높지 않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정 형편으로 인해 주변에서 빠른 취업을 요구받기도 하며 많은 학생들 역시
 생계수단과 운택한 생활을 위해 직업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생계중심의 직업관을 가
 지고 있다(장유식, 2003; 이선제, 2011). 즉 임금수준이나 타인과의 경쟁을 통한 사
 회적 성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복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애목

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생애목표 또한 성취지향적인 목표와 삶지향목표가 고루 발달한 균형 잡힌 상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는 생애목표유형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이 실제로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되어야 한다. 학생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가정환경, 사회적 분위기, 교육과정 등의 여러 영향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의 나름대로 설정하고 있는 생애목표유형이 다를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생애목표의 하위유형이 되는 성취지향목표와 삶지향목표가 고르게 발달한 고목표집단, 한 쪽만 발달한 성취목표집단, 삶목표집단, 둘 다 낮은 저목표집단으로 각각 명명, 구분하여 각 집단이 보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애목표설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현재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생애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B.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생애목표유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가설 1-1. 고목표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점수가 가장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성취지향목표집단과 삶지향목표집단은 저목표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생애목표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가설 2-1. 고목표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수준의 점수가 가장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성취지향목표 집단과 삶지향목표집단은 저목표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수준의 점수가 높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A. 특성화 고등학교

1. 특성화 고등학교의 정의

특성화 고등학교(舊 전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91조 1항에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비슷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라고 정의되고 있다.

현재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그간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및 ‘종합 고등학교’ 등 그 동안 여러 가지 유형과 명칭으로 혼용되어 혼란을 일으키는 중등직업교육기관을 2010년 초·중등직업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성화 고등학교’ 라는 명칭으로 일원화시킨 것이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중등직업교육기관 외에 대안학교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란 중등직업교육기관을 가리킨다(조규형, 2014).

2.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성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Ⅱ’에서는 과거 전문계 고등학교의 명칭이 유지되던 때의 입학자원의 감소, 대학진학 기회의 확대라는 상황 아래 중국교육이 아닌 계속교육으로서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은 직업기초능력의 습득을 강화하고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나 그 결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전문계고의 진학률이 취업률을 크게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표 1).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피 현상은 심화되었고,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양성되는 인력마저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에 현저히 부족하여 재교육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등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불신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

황은 고교단계 직업교육 과정에서의 높은 대학 진학률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현상이 나날이 심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교육과 노동시장의 불일치를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했다(조규형, 2014).

<표 1>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률&취업률 추이(2000~2013) (단위 : 명, %)

연도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취업률
2000	291,047	122,170	42.0%	149,543	51.4%
2001	270,393	121,411	44.9%	130,968	48.4%
2002	231,127	115,103	49.8%	104,138	45.1%
2003	189,510	109,234	57.6%	72,212	38.1%
2004	182,835	113,944	62.3%	60,062	32.9%
2005	170,259	115,164	67.6%	47,227	27.7%
2006	162,600	111,601	68.6%	42,151	25.9%
2007	58,708	113,487	71.5%	32,075	20.2%
2008	158,408	115,407	72.9%	30,036	19.0%
2009	151,410	111,348	73.5%	25,297	16.7%
2010	156,069	111,041	71.1%	29,916	19.2%
2011	137,102	84,288	61.5%	35,228	25.9%
2012	128,969	65,467	50.8%	47,944	37.5%
2013	122,882	51,083	41.6%	49,937	40.9%

자료: 교육부. (2013)

이후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되어 2009년 16.7%까지 추락했던 취업률이 2010년 19.2%, 2011년 25.9%, 2012년 37.5%로 뚜렷한 증가추세로 돌아서게 된 것으로는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고졸 출신의 전문성과 실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요도 한 몫 하고 있으며, 2011년 1월 제 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취업인턴제 도입, 현장중심의 직업교육강화, 기업체의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학업과 취업의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 개편을 통한 교육정책의 성과가 단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경인, 2013; 박순선, 2015). 그러나 일부 상위권 학교를 제외하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사전 정보나 기대 없이 여전히 성적순이나 경제적 여건, 부모님의 권유 등으로 입학해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보의 부족, 적성과 능력에 대한 이해의 부족,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으로 인해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에 대

하여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정소영, 이한주, 2014). 또한 최근 LG경제연구원(2014)의 조사결과 청년 고졸자의 직업은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종사자와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이·미용 관련 서비스직 등이 가장 많았다. 제조 관련 단순노무종사자에 종사하는 비중도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자의 수는 늘어나지만 취업처의 질이 자칫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는 우려를 보여준다. 또한 여러 국가정책과 학교장면에서의 노력들이 취업처의 질까지는 보장하지 않으며, 학교 교과과정과는 무관한 취업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은 취업현황을 <표 2>에 제시하고 있다.

<표 2> 청년 고졸 취업자의 상위 10개 직업 (단위 : %)

순위	세부직업	비중
1	매장 판매 종사자	11.3%
2	음식서비스종사자	6.6%
3	경영관련 사무원	6.0%
4	회계 및 경리 사무원	4.5%
5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 종사자	4.2%
6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4.0%
7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3.9%
8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3.9%
9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3.9%
10	주방장 및 조리사	2.6%

자료 : 201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B.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정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은 진로결정과 연관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다(Hackett & Betz, 1981). 이러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이며, 그는 자기효능감을 과제수행에 앞서 자신의 성공에 대한 예측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했다. 또한 행동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Bandura, 1997, 2001). 즉,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과제에 대한 시도의 여부와 수행방법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과제수행을 위한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과제를 시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열심히 시도하고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효능감은 노력의 정도나 지속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하여 어려움에 직면했을 경우 더 많이 노력하고 이것이 그에 따른 행동 또한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Schunk, 1984).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과제의 복잡성, 난이도, 수행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상황과 같은 특정 맥락 내에서 개인의 수행능력을 잘 예측하지 못하는데, 따라서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의사결정행동과 수행을 요구하고 있는 진로 분야에 자기효능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진로와 관련된 특정한 자기효능감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이은경, 2000). 또한 직업을 선택하고 기대되는 처우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사결정과 함께 관련하여 진로상담에서 적용되어야 했다(김보경, 2012; 김희주, 2014; 송현심, 홍혜영, 2010).

Hackett와 Betz(1981)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바탕으로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을 '진로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들은 자기효능감이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여러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측할 때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으며 진로결정, 진로행동 등 진로에서도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

는 가정 하에 진로발달모델에 자기효능감을 포함시킴으로써 처음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였다.

이후 Betz와 Taylor(1983)는 수학이나 과학, 기술, 공학계열과 같은 특정 진로 영역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일반적인 진로결정과 관련된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SE)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는 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그리고 자기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수집 요인은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자기신념을 의미하며, 목표설정 요인은 자신의 진로에 있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자기신념을 나타낸다. 계획수립 요인은 취업이나 진학 등에 있어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는 자기신념을 나타낸다. 문제해결 요인은 진로에 있어 문제에 부딪칠 때 능동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기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에서 출발하여 개인의 일반적인 진로결정에서의 자기효능감으로 그 의미가 정립되어 왔으며 기존의 진로자기효능감과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자신의 욕구와 그에 맞는 필요한 행동을 파악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한다.

2. 특성화 고등학생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Betz와 Taylor(1983)에 따르면 진로를 결정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나 확신감이 월등히 높다고 하였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업이나 행동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반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진로를 신속히 결정하는 것에 도움을 주며 진로결정에 필요한 행동들을 적극적 독려한다는 경향도 보고되었다(이용길, 강경희, 2011).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성적부진(36.3%)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한 가장 큰 이유라는 연구결과와(김종숙, 박태열, 2010),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 후 ‘흥미와 적성에 맞게’ 또는 ‘전공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와

같은 자발적 동기보다는 단순히 ‘인문계를 진학하기에는 성적이 부족해서’ 라는 이유가 대부분이다(김소예, 2009; 이상준, 2008; 이정규, 2011).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습열의도 적고,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도 낮은 채로 학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년 초기 직장체험과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조기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것이던 경험하고 할 수 있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을 뿐더러, 체육이나 조리 같은 특정 계열이나 전공에 한정되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송구익, 2012; 정재훈, 2012).

C. 진로결정수준

1. 진로결정수준의 정의

흔히 진로상담의 핵심을 진로의사결정이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진로상담이나 교육의 최종적인 성과물이 진로결정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황현정, 2015).

하지만 진로결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로결정을 앞두고 수 많은 상황 속에 놓여있는 내담자들에게 단지 진로결과과 미결정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진로결정이란 하나의 사건이 아닌 확신의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진로결정수준’ 이라는 개념이 제안되었다. Krumboltz(1979)는 진로결정수준을 ‘진로에 관련된 사회적 강화, 모델화, 직접적 강화, 그리고 그 단어 및 이미지의 결과로서 선호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고향자(1992)가 진로결정수준을 학생들이 진로 선택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진행수준,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 역으로는 진로 미결정 수준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뒤이어 김봉환(1997)은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이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에서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진로미결정, 진로결정, 결단성 부족 등의 개념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였다. 진로결정 또는 진로미결정이란 개념은 ‘왜 한 집단 안에서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한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가’ 를 규명하는데서 출발하였다(Wanberg, Muchinsky,

1992; 강희명, 2012; 박순선, 2015 재인용). 진로미결정은 두 가지 하위 개념으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단순 미결정’으로서 발달 과정상 혹은 상황적으로 진로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다른 하나는 ‘만성적인 미결정’으로서 생활과 행동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혼란스럽고 우유부단함을 보이는 것이다(김계현, 김봉환, 1995). 이 둘은 논리적인 구분이 가능한데, 단순 미결정은 정보부족으로 인해 아직 결정하지 않은,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상태이며 우유부단함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만성적인 미결정은 성격적 요인을 반영하여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는 심리적인 능력에 대한 결여를 뜻한다(Salomone, 1982; 강희명, 2011 재인용). 이를 바탕으로 진로결정수준이란 개인적인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한 뒤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의 경험을 통해 진로결정 및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정의한다.

2. 특성화 고등학생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 학교, 지능, 부모의 사회적 배경, 진로정체감, 부모애착,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또래 애착, 자아정체감, 유전, 환경적 조건 및 학습 경험, 불안, 진로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환경적 요인 등이 있다. 한 개인의 진로결정수준에는 이렇게 다양한 개인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문승태, 2002; 김완수, 2005; 김선아, 2008 재인용), 졸업 후 실무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 해야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결정수준을 상승시키기 위해 재학 중 취업에 연관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선별하고 그에 맞는 직업훈련을 강조하고 있다(정소영, 이한주, 2014). 또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취업이나 진학을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스스로 만족할만한 선택을 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진로결정수준의 상승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문상근, 2005). 진로결정수준의 용어 의미상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어느 한 지점을 의미하는데, 특성화 고등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여러 정보의 부족과 혼란스럽고 우유부단한 상태로 미결정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수준 연구는 부족하며 진로결정효능감과 마찬가지로 범위 또한 컴퓨터고(임소영, 2012), 미용

고(서중철, 2012), 폐광지역 여고생(임윤자, 2008)으로 넓지 않으며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생에 비해 부모의 경제·사회적 수준이나 학교생활적응, 진로태도성숙도 또한 대체로 낮다는 선행연구(이기학, 1997; 민지은, 2010; 박동열 외, 2010)들을 보아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상승시키기 위한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탐색 연구가 필요하다.

D. 생애목표유형

1. 생애목표의 정의

목표(goal)란 사람들이 열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심리적 표상으로서 한 개인의 삶에 중요한 동기화의 원천이 된다(김민주, 2013). 1970년대에 동기의 한 차원으로 소개된 생애목표는 1980년대에 들어서 행동패턴의 일관성과 방향을 결정짓는 인간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관심을 받게 되었다(양수진, 2013). 생애목표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Schmuck & Sheldon, 2001)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목표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점을 통합하여 개인의 삶 전체에 걸친 발달을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정은경, 2013). 이러한 생애목표는 한 개인의 삶에 있어 최종 목적지가 되어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동기와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Schmuck & Sheldon, 2001). 생애목표를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들은 목표에 부여하는 개인의 가치나 기대같은 인지적 측면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과 실천을 포함한 행동적 측면을 함께 측정하려고 시도했다(신중호, 2011). 실제로 대표적인 생애목표검사인 Aspirations Index(Kasser & Ryan, 1996)는 중요성과 가능성을 통해 인지적 측면을, 성취수준으로 성취수준을 동시에 물음으로써 개인의 생애목표추구 정도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려고 시도한다. 즉, 생애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목표에 대한 중요성 같은 인지적 측면을 실제로 행동화하여 개인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내면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국내에서는 신중호(2011)가 목표의 내용에 따라 직업, 일 학문분야 등 사회적 영역에서 경쟁을 통해 성공하고자 하는 성취지향목표,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안녕감을 얻고자 하는 목표를 삶의 지향목표로 나누었다(신중호, 2011). 이 두 목표는 모두 개인의 여러 측면에서 발달과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며, 특히 이 두 목표가 균형적으로 발달하였을 때 목표달성에 따른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나타난다(Keeton, Fenner, Johnson & Hayward, 2007). 특히 청소년기의 생애목표는 그들의 개인적 특성(Ludtke, Trautwein, & Husemann, 2009)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의 목표성취(Krings et al., 2008), 인간관계(Zaleski, Cycon, & Kurc, 2001), 삶의 만족도(Schmuck & Sheldon, 2001)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구인이다. 이러한 생애목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장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학생이 현재의 과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학업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생애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현재 학생들이 어떤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목표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지 먼저 측정할 필요가 있다.

2. 생애목표유형의 종류

가. 성취지향목표

생애목표의 정의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생애목표는 자기개념과 정체성 수립과 같은 발달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이 삶에 대해 느끼는 행복이나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정서적 경험에도 큰 영향을 준다(Harris et al., 2003; Headey, 2008; Cantor et al., 1991). 이러한 생애목표는 그 내용에 따라 직업, 명예, 학문분야 등의 사회적 영역에서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성취지향목표와 개인의 삶과 대인관계를 통해 삶의 안녕감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삶지향목표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생애목표 중 하나로 경제적 성공, 외모, 사회적 인정 등 외재적인 목표의 차원으로 분류되는 성취지향목표가 있는데, 이러한 성취지향목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외재적 목표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인 미래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다(김민주, 2013).

성취지향목표는 직업, 일, 학업 등에서 타인과 경쟁함으로써 중요한 것을 성취하고 사회적 영역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와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부의 획득이나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사회적 정체성이나 지위, 사회적 접촉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즉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반드시 필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신중호, 2011).

하지만 성취지향목표는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정서적인 불안정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거나 사회적 위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타인과의 경쟁이 필요하며 그 경쟁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취지향목표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청소년들은 부나 명성, 사회적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불안 등의 문제행동을 시사한다는 연구결과(김민주, 2013)가 있다. 즉 성취지향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나. 삶지향목표

성취지향목표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삶지향목표는 소속감, 신체적 건강, 공동체 의식, 자기수용과 같은 것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목표이다(김민주, 2013). 이러한 삶지향목표는 개인의 자존감과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개인의 내재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Kasser & Ryan, 2001),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발달과업을 달성하도록 촉진한다(김성수, 2015). 이러한 연구들은 자칫 삶지향 목표 만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Russell, 1930; Seligman, 2004).

개인의 생애목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생애목표가 고루 발달한 사람들이 있고, 어느 한 영역에만 생애목표가 발달한 사람들과 여러 영역의 생애목표가 모두 발달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Kasser & Ryan, 2001). 유추해 보건대, 특성화 고등학교 장면에서도 자신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취업이나 진학 등 뚜렷한 성취욕구와 함께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나 개인적 삶에서 안정감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가 반면, 한 영역의 목표에만 치중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며, 그마저도 없는 학생들도 존재할 것이다. 서울과 인천 소재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한 고등학생 320명을 한 연구(손윤영, 2014)에서는 진로목표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과제 수행의 능력이 없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움직이고 싶지 않은 무동기 상태의 학생, 외적 보상이나 압력, 혹은 제약에 순응하기 위해 행동하는 외적 동기 상태의 학생, 자신이나 타인의 인정을 받기위해 죄책감이나 불안 혹은 자기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부과된 동기 상태의 학생, 외적으로 조

절되었던 가치나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고 선택하는 단계의 행동을 보이는 확인된 동기 상태의 학생 등 다양한 동기를 바탕으로 진로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있음을 확인했다.

즉 두 목표 모두 개인의 여러 측면에서 발달과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이 두 목표가 균형적으로 발달하였을 때 목표달성에 따른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Keeton, Fenner, Johnson & Hayward, 2007).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목표인식수준을 성취지향목표와 삶지향목표로 구분함으로써 보다 균형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생애목표유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생애목표유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본 선행연구는 없으나 이백령(2012)의 연구에서 성적이 높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 한 결과 중·하위권 성적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경로를 넓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위 논문에서 제시한 직업가치관의 내·외적 가치는 생애목표유형 중 삶의 의미, 안녕감, 행복감과 관련된 삶지향목표와 경제적 부나 사회적 성공과 관련된 성취지향목표개념과 뜻을 같이 하며 어느 한 목표만 편중되어 발달한다면 성취동기나 개인적 안녕감 수준이 고르게 발달되지 못한다(신종호, 2011).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특성화 고등학생이 지향하는 생애목표유형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도 다를 것이라 예상한다. 오히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취업이나 진학의 목적이 경제적인 성공에 있더라도 그 동기가 뚜렷하다면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 또한 높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또한 높을 것이라 언뜻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 세운 가설에 따라 어느 한 쪽의 목표만 편중되어 발달한 개인은 두 목표가 균형 있게 발달한 개인보다 낮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4. 생애목표유형과 진로결정수준

생애목표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는 없으나, 생애목표 중 성

취지향목표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김민정, 2006)에서는 성취지향 목표를 유능성을 정의하는 방식과 접근/회피 성향의 관점에서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중 상대적인 무능력을 회피하려는 수행회피목표나 능력의 감소나 학습에 실패할 부정적인 가능성을 회피하려는 숙달회피목표는 한 개인으로 하여금 불안을 일으켜 진로결정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신중호(2013)의 연구에서는 과도한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업적 자기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준다고 하였다. 즉 타인과의 경쟁과 비교를 통해 달성하게 되는 목표는 그 달성과과정에서 불안과 같은 부정정서를 일으켜 진로결정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나머지 삶지향목표 또한 직접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으나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심리적 안정감이 증진될 수 있다. 하지만 삶지향목표의 과도한 추구는 개인의 발달적 단계에 맞는 실제적인 목표설정이 결여된 상태를 낳음으로서 진로결정에 있어 자칫 현실적이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인적 삶과 사회적 성취를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이 앞서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진로결정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한다.

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광역시, U광역시, Y시, H시, N시, Y시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남·여 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 자료 중 무성의하거나 무응답이 있는 설문지 58부를 제외한 총 282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B. 측정 도구

1. 생애목표 척도

본 연구는 생애목표를 측정하기 위해 Aspirations Index(Kasser & Ryan, 1996)와 Life Regards Index(Debats, 1998)을 참고하여 신중호 외(2011)가 개발한 생애목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도구의 개발 이후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5년 실시된 한국교육중단연구 등의 연구들을 통해 본 척도의 교차 타당도가 검증되고 있다. 생애목표 검사의 문항 내용을 보면 ‘미래에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은 내 삶에 중요하다’, ‘나는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행복한 가정을 구성하는 것은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등 목표의 인지적 측면과 ‘나는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일)한다’, ‘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등 행동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성취지향 목표와 삶지향 목표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생애목표 하위영역 문항 및 신뢰도(Cronbach's α)를 보면 생애목표의 하위영역 중 성취지향 목표척도의 Cronbach's $\alpha = .820$, 삶지향 목표척도의 Cronbach's $\alpha = .861$ 이며 생애목표척도의 전체 Cronbach's $\alpha = .890$ 이다.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많은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Betz와 Klein, Taylor(1996)가 개발한 CDSE-SF(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Short Form)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은경(2000)이 번안하고 타당화 시킨 CDSE-SF 또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문항의 내용을 보면 ‘만약 내가 선택한 진로를 향해 다가가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등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판단되었다. 또한 최근 들어 CDSE-SF척도 모형들 간의 불일치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Hampton, 2005)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한계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Hampton(2005)의 도구를 김동심(201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할 것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총 13문항으로 ‘나는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앞으로의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다.’ 등의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2$ 이다.

3. 진로결정수준 척도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Osipow 외(1976)가 개발한 진로결정 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2)가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적절한 문장표현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할 것이다. 이 척도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그가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4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문항 18개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의 2문항은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을 나타내며 다음의 16문항은 교육과 직업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한다. 채점은 문항 1,2와 문항 3-18을 구분하여 채점하는데 문항 1,2는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진로에 대한 높은 확신수준을 의미하며,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적인 측면에서 미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고향자(1993)가 제시한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alpha = .86$, 검사-재검사 신뢰도 .79, 반분신뢰도 .80으로 보고되었다.

C. 연구 절차

2015년 5월부터 7월 두 달 동안 G광역시, U광역시, Y시, H시, N시, Y시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1, 2, 3학년 남·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35부, 32부, 84부, 86부, 25부, 108부씩 배포되었다. 진로담당 취업·진로부장 선생님과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U광역시, Y시, H시, Y시는 해당 학교 담당교사의 설문 실시 안내사항과 함께 실시되었고 G광역시와 N시는 연구자의 설문 실시 안내사항과 함께 실시하였다. 설문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D.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둘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셋째,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비계층적 군집분석(K-means)를 실시하였다.
- 넷째, 각 군집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 다섯째, 각 군집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A. 인구 통계학적 특성분석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분석을 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인구 통계학적 특성 (N=282)

특성요인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172	61.0
	여	110	39.0
	합 계	282	100
학년	고등학교 1학년	86	30.5
	고등학교 2학년	137	48.6
	고등학교 3학년	59	20.9
	합 계	282	100
졸업 후 진로계획	진학	77	27.3
	취업	205	72.7
	합 계	282	100

청소년 282명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학생 172명(61%)과 여학생 110명(39%)으로 성별 비율은 남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구성은 고등학교 2학년 137명(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86명(30.5%), 고등학교 3학년 59명(20.9%)순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진로계획은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77명(27.3%),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205명(72.7%)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서 각 척도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 통계치를 구하였으며, 생애 목표 척도의 하위 척도인 성취지향목표, 삶지향 목표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최고점수와 최소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했으며 그 결과는 각 척도에 대한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N=282)

측정변인	하위척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생애 목표	성취목표	21.00	60.00	42.84	6.24
	삶목표	22.00	58.00	45.40	6.3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18.00	65.00	45.20	7.87
진로결정수준	진로/전공 결정수준	4.00	8.00	5.59	1.21
	직업미결정수준	32.00	48.00	40.00	4.37

C.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군집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면 성취지향목표와 삶지향목표 모두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 생애목표변인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취지향목표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r = .533, p < .01$)이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삶지향목표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r = .572, p < .01$)또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생애목표변인과 진로결정수준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취지향목표와 진로/전공결정수준($r = .360, p < .01$)이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삶지향목표와 진로/전공결정수준($r = .355, p < .01$)또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성취지향목표와 직업미결정($r = -.005$), 삶지향목표와 직업미결정($r = -.097$),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직업미결정($r = -.125$), 진로/전공결정수준과 직업미결정($r = -.192$)으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척도 간 상관은 <표 5>과 같다.

<표 5>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N=282)

주요변인	성취목표	삶목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1		
삶목표	.506**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533**	.572**	1
진로/전공결정	.360**	.355**	.522**
직업미결정	-.005	-.097	-.125*

** $p < .01$

D. 생애목표유형분류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가진 목표의 특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려 했기 때문에 군집분석과 같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분석(person-centered analysis)을 사용하는 것이 본 연구문제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한 개인이 여러 종류의 목표를 동시에, 하지만 다양한 수준으로 가질 수 있다는 전제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군집분석을 통하여 비슷한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끼리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예: 성취지향 목표와 삶지향목표가 둘 다 높은 사람들끼리 모아주고, 성취지향목표만 높고 삶지향목표는 낮은 사람들끼리 모아주는 과정을 통해 그룹을 형성) 삶지향목표나 성취지향목표와 같은 변인을 중심으로 한 평균 차이를 통해 집단을 구분하는 방법도 있으나 개인들의 다중목표지향적인 특성을 비교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즉, 비슷한 성향을 가진 개인들을 분류해내기 위해 군집분석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연구 계획 시 군집의 수를 미리 4개로 정해놓은 점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군집을 나눈 방법적 측면 등을 참고하여 4개의 군집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비계층적 군집방법인 K-means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생애 목표 척도의 하위 요인이 되는 성취목표와 삶목표 점수의 합계를 초기 중심점으로 투입하여 군집을 분류하였고 그 결과를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6> 군집의 유형 분포

구분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고목표집단	성취목표지향집단	삶목표지향집단	저목표집단
빈도(비율)	64명(22.7%)	111명(39.4%)	92명(32.6%)	15명(5.3%)

<표 7> 최종 군집 유형

군집요인	군집1 고목표집단 (n=64)	군집2 성취목표 지향집단 (n=111)	군집3 삶목표 지향집단 (n=92)	군집4 저목표집단 (n=15)	F	Scheffe'
성취목표	50.06	43.18	38.99	33.13	118.006***	.000
삶목표	51.72	41.35	47.90	33.13	159.330***	.000

*** $p < .001$

군집 1에 속하는 인원은 성취목표점수와 삶지향 목표 점수가 기타 군집들의 점수보다 모두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군집 1에 속하는 학생들은 다른 집단의 학생들보다 성취목표와 삶목표가 다른 군집에 비해 가장 높고 균형있게 발달했다는 것을 점에서 고목표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유일하게 성취목표의 점수가 삶목표 점수보다 높게 발달하였으며, 고목표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도 성취목표가 주로 발달된 특징을 고려하여 성취목표지향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고목표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성취목표점수는 낮으며, 삶목표점수가 성취목표점수보다 발달해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군집 3을 삶목표지향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성취목표점수와 삶목표점수가 다른 모든 군집이 가지는 점수보다 모두 낮은 모습을 보였다. 즉 군집 4에 속하는 학생들은 다른 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성취목표와 삶목표 모두가 낮은 태도를 가졌을 것이라 예상되어 저목표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E. 생애목표유형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

생애목표유형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생애목표유형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5.508, p<.000$), Scheffe 사후검증결과 .05 유의수준에서 고목표집단이 다른 모든 집단들에 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성취목표집단과 삶목표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나머지 저목표집단은 다른 모든 집단들에 비해 낮았다.

<표 8> 생애목표유형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

종속변인	고목표집단 M(SD)	성취목표 지향집단 M(SD)	삶목표 지향집단 M(SD)	저목표집단 M(SD)	F	Scheffe'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51.03 (6.38)	43.68 (6.56)	44.51 (7.88)	35.93 (7.09)	25.508** *	1>2,3>4

*** $p<.001$

F. 생애목표유형별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생애목표유형별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생애목표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 요인 중 진로/전공 확신수준에서 고목표집단의 진로/전공 확신수준이 타 집단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F=13.771, p>.000$). 또한 성취지향목표집단과 삶지향목표집단, 저목표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나머지 하위 요인인 직업결정수준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9> 생애목표유형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

종속 변인	하위요인	고목표집단 M(SD)	성취목표 지향집단 M(SD)	삶목표 지향집단 M(SD)	저목표집단 M(SD)	F	Scheffe'
진로결정 수준	진로/전공	6.32 (1.12)	5.32 (1.17)	5.38 (1.41)	4.46 (1.18)	13.771***	1>2,3,4
	직업결정	40.53 (9.94)	41.30 (7.25)	40.13 (8.52)	42.00 (5.38)		
	수준						

*** $p < .001$

V. 결론 및 논의

A. 연구의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애목표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있어 생애목표설정의 중요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G광역시, U광역시, Y시, H시, N시, Y시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부실 기재된 88부를 제외한 나머지 282부(남 172명, 여 110명)의 자료를 토대로 최종 분석하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측정도구는 Aspirations Index(Kasser & Ryan, 1996)와 Life Regards Index(Debats, 1998)을 참고하여 신중호 외(2011)가 개발한 생애목표 척도, Hampton(2005)의 도구를 김동심(2014)이 변안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척도,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chir(1976)가 개발한 진로결정 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2)가 변안한 진로결정수준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K-means 군집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의 연구가설 1-1, 연구가설 1-2을 검증하기 위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군집화 후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생애목표 중 성취지향목표와 삶지향목표가 고루 발달한 고목표집단의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성취목표집단과 삶목표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연구문제 1의 연구 가설을 모두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문제 2의 연구가설 2-1, 연구가설 2-2을 검증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K-means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군집화 후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

으며, 생애목표 중 성취지향목표와 삶지향목표가 고루 발달한 고목표집단의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하위 요인 중 전공/진로결정수준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성취목표집단과 삶목표집단, 저목표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연구문제의 2의 연구가설 2-1과 2-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군집 간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하위 요인 중 진로/전공 결정수준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다른 하위 요인인 직업결정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생애목표가 고루 발달한 고목표집단에 해당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에 있어 향후 취업분야, 전공과 같은 큰 틀에서의 결정수준은 다른 군집에 속하는 학생들보다 높으나, 구체적인 직업을 결정하는 것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집의 수를 보았을 때, 성취지향목표집단에 포함되는 학생의 수가 111명으로 나머지 집단들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많았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경제적 지위 같은 성취지향적 요소들이 과도하게 중요시 되는 현대 사회의 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요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향후 직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당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이 급여, 직장 규모나, 후생복지 같은 것이라는 선행연구(하영만, 2014)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성취지향목표와 삶지향목표가 고루 높게 발달한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크며, 취업분야나 전공영역에 대한 결정수준도 높지만 직업결정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애목표검사의 문항은 개인의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삶의 두 영역인 ‘사회적 성취’와 ‘개인적 삶’이라는 범주를 통해 사람들의 실제적인 목표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데,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신이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지향목표와 개인적인 안녕감을 포함하는 삶지향목표의 불균형은 한 개인의 진로발달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애목표가 성취와 삶 모두에서 균형적으로 발달할 필요가 있음을 검증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초점이다. 즉 사회적인 성취만을 맹목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만족에 충분하지 않으며, 삶지향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발전과 성장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신중호, 2011).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로 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성취지향목표와 삶지향목표의 영향은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

데, 무엇보다도 내재적, 외재적 목표 연구에서 나아가 보다 미래 시간적 관점에서 각 목표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목표가 직업결정에 당면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목표가 뚜렷할수록 자신의 학업상황에서 자기개념과 성취동기가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김용래, 1994)의 결과처럼, 자신의 목표가 뚜렷하고 분명한 학생들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시도하고자 하는 동기가 클 수 있다는 것으로도 예측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생애목표가 고르게 발달한 학생들은 진로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또한 이와는 반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것은 자신의 뚜렷한 생애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생애목표를 찾아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면, 이들이 진로결정의 갈림길에 섰을 때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척도의 하위 요인 중 직업결정점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애목표의 설정여부가 구체적인 직업까지 선택하는 데에는 결정적이지 못하다고 보여 지는데, 학생들이 어떤 직업과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생애목표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면 직업을 결정하게 될 시기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실제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진로탐색몰입에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이미나, 2015)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라 형성된 진로가치관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백령, 2012)의 결과처럼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해당 과업에 대한 몰입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직업선택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B. 의의 및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G광역시, U광역시, Y시, H시, N시, Y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연구결과를 연구지역과 대상의 확대해석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 많은 지역과 사례수를 확보하여 연구를 한다면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생애목표가 진로결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애목표에 따라 군집화 하였다. 하지만 장기적인 종단적 연구를 통해 한 개인이 생애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면 진로결정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생애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을 탐색한 선행연구(정은경, 2012)에서는 한 분야에 대한 내재적 흥미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실제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흥미를 가지기 까지 많은 요인들이 관여한다. 특히 부모와 학교 교사는 개인이 선택하게 되는 특정 분야에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비교적 빠른 선택을 해야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특성상 그들의 삶에 관여하게 되는 주변인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생애목표유형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았으나 진로에 관한 기타 변인들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의미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직업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 진다. 특성화 고등학생들은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취업 역량 강화 정책에 따라 고등학교 1, 2학년 시절 취업설명회, 취업멘토링, 취업캠프, 직업현장체험, 진로/직업상담, 진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자신의 취업처를 모색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가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라 그것이 구체적인 직업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준비행동 같은 행동적인 변인에 대한 연구와 균형 잡힌 생애목표를 가질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지나치게 성취 지향적이며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졸업 후 취업을 주요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 중에는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도 있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적성과 흥미보다 급여나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직업결정에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어찌면 이 같은 현상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고려하게 되는 필수조건일 수도 있지만, 비교적 좋지 않은 가정환경이나 많은 경험이 뒷받침 되어 지지 않은 중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여 고3 즈음부터 사회생활에 뛰어드는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자신이 어떠한 태도와 가치관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자기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취업과 전공을 결정한다면 진로발달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전과나 편입, 이직, 퇴사, 해고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만을 위해, 사회적 분위기에 떠밀려 막무가내 식으로 취업처를 결정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생들에게 자신의 생애목표설정 에 대한 고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고민해야하는 것이며, 그 고민이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정은 (2008).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4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 여자대학생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명 (2012).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개혁위원회 (1996).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2)**.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 교육부 (2014).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 교육부 (2014).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 진학률 추이(2000~2013)**. 교육부
- 권미정 (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탄력성, 부모지지,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용호 (2002). **실업계 고교생의 심리적 독립 및 학업성취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인 (2013).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과 자율성, 관심 및 헌신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현, 김봉환 (1995). **진로 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20-43.
- 김동심 (2014). **특성화고교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학교소속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학교만족도의 관계규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래경 (2013). **부모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주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목표 불안정성 및 생애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경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력 및 진로동기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2011). 진로교육에서 직업카드 활용의 현황과 과제. **열린교육연구**, 19(1), 175-196.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7).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수리 (2005).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아 (2008).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예 (200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선택 만족 및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완수 (2005).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2009).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의 관계**.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 (2013).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숙, 곽태열(2010). 전문계고등학교 진로지도 방안 연구. **경영컨설팅리뷰**, 1(2), 209-229.
- 김태경 (2007).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이 실업계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환 (2013).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관수 (2014).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학습경험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평훈 (2008).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 및 진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2011). **진로성격유형에 따른 부모 진로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 Holland 진로탐색검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주 (2014). **다차원적 완벽주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순임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가은 (2012). 부모지지가 고교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상근 (2005). 진로결정 수준, 진로 미결정 유형과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계 :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비교.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승태 (2002).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심리적 변인간의 인과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지은 (2010). 특목고 일반계고 전문계 고등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생활 적응 비교.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광준 (2009). 특성화 고등학교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상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동열 외 4인 (2010). 전문계 및 일반계 고교생의 기초학습능력 수준과 영향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3). 1-23.
- 박선희 (2013).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의사결정 유형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형 (2012). 특성화 대안학교 고등학생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선 (2015).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아 (2005). 청소년의 진로 및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봉숙 (2014).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 차이.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자 (2012).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 만족도와 진로에 미치는 영향 : 충청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종철 (2012).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및 진로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윤영 (2014). 청소년의 자기결정성동기 유형에 따른 진로목표의 차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구익 (2012). 조리 기능사 자격증의 역할이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심, 홍혜영 (2010). 대학상담 :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신종호, 서은진, 이유경 (2011). 생애목표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5(2), 255-276.
- 신종호, 진성조(2013). 생애목표유형이 학업적 자기개념, 학업노력,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 성취수준에 따른 차이검증. **교육심리연구**, 27(1), 161-180.
- 안태희 (2015).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신념과 사회적 지지 요소: 입학동기에 따른 차이.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선주 (2013). 학생의 인식에 터한 대전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진로상담 실태 및 요구조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수진 (2013). 발달에 따른 생애목표 변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 중년기 성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진희, 김봉환 (2008).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2), 57-71.
- 위선희 (2013). 부모지지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광현 (2013). 특성화고등학생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 대구·경북지역 특성화고생을 중심으로. **산업교육연구**, 27(4), 19-39.
- 윤상명 (2009). 전문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직업관 및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혜 (2015). 사회비교경향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나 (2015).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진로탐색몰입, 학습지향성 간 구조적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갑 (2002). 실업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의사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섭 (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진로지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 (2002). 상호평가 피드백이 학습태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사회과 토의학습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백령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관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옥, 임세영, 이상봉, 황정훈, 김충한 (2010). 산학협력 인력지원사업 발전방안. 중소기업청.
- 이상준 (2008). 성인학습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태도가 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 : 송파구 한림 실업고등학교 여성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미 (2013).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취업 눈높이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제 (2011).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 서울지역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애 (2005). 성역할정체감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차이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미 (2012). 특성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길, 강경희 (2011). 교육정책및철학 :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 분석 - 공학 및 사회계열을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14(2), 60-67.
- 이윤경 (2010). 부모의 진로기대가 자녀의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 중심. 배재대학교 행정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아 (2007). 청소년의 진로관 결정요인과 학년별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규 (2011). 특성화 고등학교별 진로선택과 진로지도의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성 (2004).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 역할 및 목적에 관한 교사의 인식. 직

- 업교육연구: 23(3), 67-82.
- 이종열 (2006). 실업계 남자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소영 (2012). 컴퓨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선택 및 교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윤자 (2008). 폐광지역 전문계 여고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진로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경 (1997). 진로상담을 위한 Super와 Holland 이론의 통합. 한국진로상담학회, 2(1), 84-107.
- 임정인 (2014).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특성화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장벽 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기명 (1998).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보라 (2014).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지지가 리더십생활기술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유식 (200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인식에 따른 진로의식의 차이.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화 (2008). 고등학생의 자기분화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순초 (2010). 청소년의 성인애착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모 (2013). 특성화 고등학생의 반발심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열 (2014). 중소기업 특성화고졸 초기경력자의 경력몰입과 개인 및 조직 특성의 위계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소영, 이한주(2014).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분석 :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28(4), 1-29.
- 정은경 (2012). 생애목표 의미와 추구 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훈 (2012). 체육전공 고등학생의 학교 유형에 따른 체육수업 흥미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화 (2014).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진학상담교사 직무수행에 대한 인식과 요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규형 (2014).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정 (2013). 특성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병주 (2011). 부모의 진로기대와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수준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선, 이종범 (2013).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의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직업교육학회지*, 32(1), 1-21.
- 하영만 (201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 취업 여부, 직장규모, 직종유형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재호 (2014). 국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 발전 사례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현정 (2015).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특성화고등학교 통계서비스 (2015). *학생통계*.
- LG경제연구원 (2014). *청년 고졸 취업자의 직업*.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he Exercise to control*, NY: W. H. Freeman and Company.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to control*, New York: Freeman.
- Bandura, A. (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서울: 교육과학사(원저 1977년 출판).
- Cantor, N., Norem, J., Niedenthal, P., Langston, C., & Brower, A. (1991). Life-tasks, self-concept ideals and cognitive strategies in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78-1191.
- Debats, D. L. (1998). Measurement of personal meaning: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life regards index. In: Wong, P. T. P, Fry, P. S.

- (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Mahwah,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37–259.
- Hackett, G., & Betz, N. E. (1981). Som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1), 1–12.
- Hampton, N. Z. (2005). Testing the structure of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 - short form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 98–113.
- Harris, C., Daniels, K., & Briner, R. B. (2003). A daily diary study of goals and affective well-being at work.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6, 401–410.
- Headey, B. W. (2008). Life goals matter to happiness: A revision of set-point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6, 213–231.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410–422.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280–287.
- Kasser, T., & Ryan, R. M. (2001).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Optimal functioning and the relative attainment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In P. Schmuck & Sheldon (Eds.) *Life goals and well-being*. Gottingen: Hogrefe.
- Keeton, K., Fenner, D. E., Johnson, T. R. B., & Hayward, R. A. (2007). Predictors of physician career satisfaction, work-life balance, and burnout. *Obstetrics & Gynecology*, 109, 949–955.
- Kofodimos, J. (1993). *Balancing ac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Korman, A. K., Korman, R. W. (1980). *Career success/Personal failu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Krings, F., Bangerter, A., Gomez, V., & Grob, A. (2008). Cohort differences in personal goals and life satisfaction in young adulthood: Evidence for historical shifts in developmental task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5, 93–105.
- Krumboltz J. D., & Schroder, D, S(1982). Effect of training in rational decision making on the quality of stimulated career decis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e. J. Q., McInerne, D. M., Liem, G. A. D., & Ortiga, Y. P.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goals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 intrinsic–extrinsic motivation perspectiv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5, 264–279.
- Ludtke, O., Trautwein, U., & Husemann, N. (2009). Goal and personality trait development in a transitional period: Assessing change and stability in personality develop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 428–441.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Columbus, OH: Marsthon Counseling and Press.
- Russell, B. (1930). *The Conquest of Happiness*. New York: H. Liverigh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 Salomone, P. R. (1982). Difficult cases in career counseling: *II – The indecisive client*.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496–500.
- Schmuck, P., & Sheldon, K. M. (2001). *Life goals and well-being*. Hogrefe & Huber Publishers.
- Schunk, D. H. (1984). Self–efficacy pre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33, 299–315.
- Seligman, M. E. P. (2004). *Authentic Happiness*. Free Press.
- Sheldon, K. M., & Kasser, T. (1995). Coherence and congruence: Two aspects of personality integ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68(3), 531.
- Wanberg, C. R.,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80.
- Waterman, A. S., Schwartz, S. J., Goldbacher, E., Green, H., Miller, C., & Phillip, S. (2003). Predicting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intrinsic motivation: The roles of self-determination, the balance of challenges and skills, and self-realization val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11), 1447-1458.
- Zaleski, Z., Cycon, A. & Kurc, A. (2001). Future time perspectiv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dolescent samples. In Schmuck, P. & Sheldon, K. (Eds.) *Life Goals and Well-being*. Gottingen: Hogrefe.

부 록

<부 록 1> 생애목표 검사지

<부 록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검사지

<부 록 3> 진로결정수준 검사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생애목표유형과 진로결정과의 관계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 설문지는 특성화 고등학교 1,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생애목표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설문
지입니다. 좋고 나쁜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대답은 이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솔직한 느낌이나 생
각과 가까운 것을 1개만 골라 V 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는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보는 누출되는 일이
절대 없으며 오직 이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향후 진로에 있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설문
응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속: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전공: 상담심리전공
연구자 : 임 경 용
지도교수 : 김 택 호

【생애목표 검사지】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생애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평소 생각과 가장 잘 일치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하위목표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취지향 목표	부를 획득하는 것은 내 삶에서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미래에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은 내 삶에서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돈을 모으기 위해 계획을 세워 돈을 쓰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분야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삶에서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직업은 매력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0		개인의 잠재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삶 속에서 자기성장을 잘 이루어낸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배우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에 시간이나 돈을 투자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하위목표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삶지향목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행복한 가정을 구성하는 것은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가족들이 요즘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가족들이 요즘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행복한 삶을 위해 좋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주변 사람들과 자주 만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여가생활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여가 시간을 갖기 힘든 직업은 나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여가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검사지】						
아래의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 자신의 평소 모습과 가장 잘 일치되는 곳에 "V"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앞으로의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진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좌절을 겪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미래의 취업이나 취직을 위한 면접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가 선호하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이력서를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만약 내가 선택한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직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진로결정수준 검사지】					
아래의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을 나타내고 있는 정도를 잘 일치되는 곳에 " V "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다소 그런 편이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에게 재능이 있고 기회도 주어진다면 나는 000이(가)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나는 다른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똑같이 관심이 있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결정 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결국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직업에도 호감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000이(가) 되고 싶지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진로결정이 어렵다. 나 자신과 그들의 생각이 같은 직업을 발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7	지금까지 나는 진로선택에 관해 많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내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별로 없고, 또 지금 진로 결정을 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8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결정하는 것을 미루고 싶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다른 진로를 모색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10	나의 진로선택에 확신을 갖고 싶지만 내가 아는 어떤 진로도 나에게 알맞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진로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버리고 싶다.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지 알려줄 수 있는 검사라도 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12	나의 전공분야가 내가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나의 적성과 실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지금 당장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나의 관심분야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 흥미를 끄는 분야가 몇 가지 있지만 나의 진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의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진로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들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7	진로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들에 관해 더 나은 정보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